

다기능성 섬유소재 「DEOCROSS」

최근 시키보사는 여러 가지 기능성 가공을 조합시킨 다기능성 섬유소재 「DEOCROSS」를 개발하였다. 항균, 소취, 형태안정성 등 소비자의 요구가 많은 기능성 가공을 복합적으로 부여하면서도 기존의 기능성 원단보다 단가를 낮추었다.

「DEOCROSS」는 항균, 방취, 소취, 이지케어, 흡한속건성 등의 기능을 갖춘 면 100% 및 폴리에스터 혼방 다기능성 섬유소재이다. 최근 수요가 많은 여러 기능성 가공을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면 가공 비용이 증가하여 원단의 단가가 상승하지만, 「DEOCROSS」는 개발 단계부터 여러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하여 가공 비용을 낮추면서도 다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DEOCROSS」에 접촉냉감 기능을 부여한 「DEOCROSS COOL」, 흡습발열 기능을 부여한 「DEOCROSS WARM」이 있으며, 여기에 자외선 차단, 항산화, 항진드기, 광촉매 방오 기능성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시키보사는 유니폼, 침장, 셔츠 등의 제품에 기능성과 적정 가격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신소재 차열 기능성 가공 원단인 「SHER NETZ」는 특수 세라믹을 원단에 가공처리하여 태양광 등에 포함되어 있는 열선을 반사시키는 방식으로 차열 효과를 나타낸다. 현재는 면 100% 및 폴리에스터 혼방 직물이 상품화되어 있으며, 주로 아웃도어, 커튼 등에 응용되고 있다.

♣ 섬유뉴스(2013. 10. 17)